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영상

매일 아침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형선 목사의 아침묵상"이 성도님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루도 빼먹지 마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아침묵상 활용 가이드

1.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2. 성경책을 펴시고 기도로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3. 아침묵상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4. 기도로 나에게 적용하여 마무리하십시오.
5. 묵상노트를 적으시거나 기도제목을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4. 2022년도 재정감사

작년도 재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재정감사는 윤한진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김종대 성도님이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재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2월 마지막 주 일 정기총회를 열고 성도님들께 재정보고 및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 2022년도 현금정산신청

2022년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현금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경열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1/8)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일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US\$1,15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빅토리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3:1-7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Nothing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월 22일	1월 29일
강민선	윤하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월-토) 매일 오전 7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지상으로 쫓겨 온 천사 미가엘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지상에서 구해오지 못하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다니던 미가엘은 풍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느 구두 가게 가족들을 만나면서 처음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 미가엘은, 자신이 바로 내일 죽는다는 것도 모른 채 최고급의 구두를 주문하러 온 오만한 부자를 보고서 마지막 질문의 해답도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일일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능력...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가’의 줄거리입니다.

톨스토이는 결국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앞날의 일을 미리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유한함 속에서 시간을 아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마치 네 잎클로버(행운)를 찾기 위해 세 잎클로버(행복)를 밟고 다니듯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주어졌을지 모를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까?